

해남서 탈북민 치유교육...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

통일부 제2하나원 프로그램

직접 지역 방문 첫 사례 주목
음악·미술치유로 심신 달래줘
경색된 남북관계에 가족격정도
“필요한 심리적 지원 제공 최선”

“넓은 정원에 모여 오랜만에 고향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안부도 나누고, 심리치유도 받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한국에 정착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마음의 고향인 하나원에서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맷습니다.”

시원한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1일 오전 11시께 해남 산이면 산이정원에는 전남 각지에서 찾은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마음쉼터’가 주관한 탈북민 심리치유 프로그램인 ‘하나마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서로 연락과 왕래가 뜸했던 참가자들은 각자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오랜만에 만난 고향사람들이 반겨주는 듯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안부를 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리상의 이유로 교육참가가 제한적이었던 전남지역 탈북민들을 위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제2하나원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심리치유교육을 진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

했다.

행사에는 지역에서 탈북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탈북민 36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으로 다양했지만, 거주지는 모두 전남으로 같았다.

교육은 음악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미술치유를 통한 자기감정의 이해 등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음악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명상에 이어 각종 민요와 대중가요에 맞춰 함께 울동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실내에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심신을 달랬다. 한 참가자는 음악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기다 과거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스피커에서 인기 가수의 트로트가 나오자, 참가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자에 맞춰 춤을 추며 웃음꽃을 피우는 등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미술프로그램은 서로에게 불리고 싶은 새로운 이름을 만든 뒤, 각자 받고 싶은 선물과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스로에게 ‘금메달’이라는 이름을 붙인 한 참가자는 받고 싶은 선물로 ‘사랑과



통일부 제2하나원 ‘하나마음쉼터’는 지난 1일 오후 해남 산이면 산이정원에서 전남지역 탈북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쁨’을 적은 뒤 “이북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정착한 이후까지 늘 남을 위해 살아왔던 것 같다”며 “이제 남은 인생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탈북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느덧 중학생이 돼 함께 행사에 참석한 모녀도 있었다. 목포에 거주 중인 박모(57)씨는 “이북에 있는 자강도(북한 행정구역 체계)에서 살다가 13년 전 탈북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할 때 서로 의지가 됐던 고향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돼 반가웠다”며 “고향사람들에게 말을 소개시켜주고

함께 바깥 바람도 쐬며 추억을 쌓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황해도에 살다가 탈북 후 여수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는 조모(75)씨는 “탈북민 관련 행사 때마다 고향사람들을 만나 많은 위안을 받고는 한다. 그동안 거리 등의 문제로 자주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2의 고향과도 같은 하나원이 전남까지 찾아와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대체로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때때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로

인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 평화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모(55)씨는 “20여년 전 처음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복송돼 2년간의 옥살이 후 재탈북을 감행한 끝에 어렵사리 한국에 오게 됐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북한의 파병사실이 확인돼 고향에 두고 온 딸과 남동생에 대해 우려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과 전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에서 온 임모(64)씨도 “이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20여년전 딸들과 함께 탈북하게 됐다. 부인과 친척들은 모두 북에 남아있지만 소식을 알 길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에 있는 조카들이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삼민 통일부 제2하나원 교육운영팀장은 “탈북민들은 재북시절과 탈북과정, 탈북 이후 적응 과정 등에서 ‘삼중고’ 트라우마를 겪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유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19일께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SNS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60여명에게 권리당원·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권리당

원 투표에 참여한 뒤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살인죄로 복역 후 3년만에 또 살인... 검찰, 무기징역 구형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

13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 폐포텔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 이후 이를 목격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숨길 때까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같은 달 중순 이미 폐업처리 했으나 B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살해된 지 3주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희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당일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이후에는 노래방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면서 “피고인은 살인죄 처벌을 받고도 재차 강도 살인죄 등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시신을 교각 아래에 이불 등으로 숨겨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현기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